

이하이 '서울라이트'로 3년만에 컴백

"하고싶은 음악을 해도 된다는 답을 얻은 것 같다"

가수 이하이(20)는 "답을 얻은 것 같다"며 웃었다. "앞으로도 이런(하고 싶은) 음악을 할 수 있다는, 해도 된다는 답을 얻은 것 같아요. 제 기대보다 훨씬 더 사랑해주셔서 정말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번 앨범 '서울라이트(SEOULITE)'가 나오기까지 무려 3년이 걸렸다. 소속사(YG 엔터테인먼트)에 소속 가수가 많은 탓에 뒤로 밀리기도 했고 한참 준비를 하다가도 "이 방향은 아닌가" 싶어 다시 열기도 했다. "거창하게 평가 받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냥 걱정과 고민이 많았던 3년을 그렇게 보냈다."

지금에야 "저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준 시간"이라고 말하지만 아무래도 길긴 길었다. "3년은 좀 너무 길지 않아요. 2년 정도 쉬었으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었을 것 같지만 좀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런 고민과 한숨 쉬었던 순간이 저한테 좋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이하이의 "고민과 한숨"은 앨범에 고스란히 담겼다. "꽤 다른 걸 해 보고 싶기도 하면서도 대중이 좋아했던 제 모습을 이어가야 할 것 같기도 했고요. 3년 동안 성장했다고 기대하고, 오래 기다린만큼 더 좋은 결과물을 예상할 텐데 그걸 어떻게 하면 더 채워드릴 수 있을까?"

합창그룹 '에픽하이'의 타블로, 루터가 프로듀싱한 이번 앨범은 확실히 장르적이다. 힙, 코드쿤스트, 워너의 송민호, 바버

렛츠, '사이니의 종현, 도끼 등 각 분야의 내로라하는 뮤지션들이 이하이의 훌륭한 목소리와 합을 맞췄다.

대중적인 것보다는 "하고 싶은 걸 많이 한 앨범이라서 걱정"도 했지만 진심과 열정이 담긴 앨범에 대중의 반응은 열광적일 수밖에 없다. 더블 타이틀곡 '한숨과 손잡아줘요' 뿐 아니라 수록곡까지 국내 음원차트를 석권했고, 아이튠스에서도 8개국 차트 1위에 오르는 등 순항하고 있다.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걸 확실히 알고 계속 열심히 하는 가수, 자기 색을 지키는 가수로 기억되고 싶어요."

3년만의 컴백 전야, 잠을 잘 못 잘 정도로 떨렸다. 너무 기대려 온 무대였다. "아, 컨디션 조절을 해야 하는데, 무대에 서니까 떨리기도 했고 또 생각보다 편하기도 했어요. 일단 기분이 좋았고요. 오랜만에 노래할 수 있어서 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남은 하프앨범 발매를 앞둔 이하이는 계속해서 "꿈" "조만간"을 강조했다.

계속 오래 활동하고 싶지만 아직 정확한 발매 날짜나 트랙리스트도 정해진 건 없다. 좋은 노래로 나머지 반이 채워지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그 트랙리스트에 작사가·작곡가로 이름을 올리는 건 이하이의 "숙제"다.

"솔직한 저의 얘기를 하고 싶어요. 곡을 받아서 부르다 보면 가끔 공감이 안 될 때가 있었어요. 제가 가사를 쓰고 노래를 부르면서 스스로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가



3년 만에 서울라이트(SEOULITE) 타이틀곡 '한숨'으로 컴백한 이하이

사와 멜로디를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로 나올 앨범에 제 노래를 넣을 수 있게

/인진수기자



세계주니어피겨스케이팅대회 차준환등 출전

한국 피겨의 미래를 이어줄 유망주들이 2016세계주니어피겨스케이팅선수권대회에 출전한다.

대회는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헝가리 데브레첸에서 열린다. 남자싱글의 차준환(휘문중), 변세종(화정고)과 여자싱글의 손서현(세화여고), 김하늘(평촌중) 등이 나선다. 또 아이스댄스 종목의 이호장-김강민이 출전한다.

큰 기대를 모으는 선수는 차준환이다. 차준환은 지난 1월 피겨종합선수권대회에서 189.98점으로 3위에 오르며 선발 자격을 얻었다.

지난해 말 열린 회장배경기대회에서는 220.40점으로 우승을 차지했고, 지난해 유스올림픽에서는 198.90점으로 5위를 차지했다. 남자싱글의 변세종은 종합선수권 4위(180.74점)로 선발 자격을 얻었다. 지난해 2016 사대륙피겨선수권에서는 176.15점으로 18위에 올랐다.

손서현과 김하늘은 종합선수권에서 각각 159.32점(6위)과 158.75점(7위)을 얻어 이번 대회에 출전하게 됐다.

/김민근기자

고척돔 프로야구 첫 홈런 주인공은 SK김강민

SK 와이번스의 '캡틴' 김강민이 고척돔에서 그랜드슬램으로 프로야구 첫 홈런을 때렸다.

김강민은 15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넥센 히어로즈와의 2016 프로야구 시범경기에서 4회 만루홈런을 터뜨렸다.

고척돔 첫 홈런은 지난해 11월 청룡기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서울고 경기장 백호가 기록했다.

프로야구 경기에서는 김강민의 홈런이 처음이다.

김강민은 팀이 1-2로 끌려가던 4회 2사 만루에서 하영민의 3구째 높은 코스로 오는 구속 142km 직구를 공략해 우중간 담장을 넘기는 비거리 110m 홈런을 만들었다.

김강민은 올 시즌 시범경기 첫 홈런을 고척돔에서, 그것도 그랜드슬램으로 장식했다.

뜬공 타구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는 고척돔 중견수 자리에서도 좋은 수비를 보였다.

2회 2사 1루에서는 임병욱의 콤팩한 타구를 펜스에 부딪히며 잡아낸 후 재빨리 유격수에게 중계해 1루 주자까지 더블플레이로 처리했다.

/김민근기자

레스터 시티, 뉴캐슬 1-0 제압...선두 질주

레스터 시티의 프리미어리그 우승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레스터 시티는 15일 오전 5시(한국시간) 영국 레스터의 킹파워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5~2016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30라운드에서 뉴캐슬에 1-0으로 승리했다.

2연승이자 4경기 연속 무패(3승 무패)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승점 3점을 챙긴 레스터 시티는 여전히 선두를 질주, 첫 번째 프리미어리그 우승컵을 향해 가속을 붙였다. 리그 8경기를 남겨 둔 채 2위 토트넘(16승10무패·승점 58)과의 격차는 5점이다.

뉴캐슬은 강등권(18~20위)을 벗어나지 못했다. 6승6무17패(승점 24)로 19위다.

/김민근 기자

체육계 입시비리 한번만 적발돼도 영구 퇴출 한다

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근절 특별전담팀 방지책 시행 발표

앞으로 체육계 입시비리에 연루된 학생선수와 운동부 감독은 한 번만 적발돼도 스포츠계에서 영구 퇴출된다.

입시비리가 발생한 대학교 운동부는 일정 기간 대한체육회 산하 종목별 단체가 주최하는 전국 규모의 대회와 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가 주최하는 배구·축구·농구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경찰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한체육회 등으로 이뤄진 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근절 특별전담팀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입학비리 재발 방지책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고질적인 체육특기자 입학비리를 뿌리 뽑는다는 취지다.

최근까지 일부 대학에서 역량 미달 선수 끼워 넣기, 경기 실적·승부 조작 등 체육특기자 입학비리가 발생해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번 체육계 입학비리 재발 방지책에 따르면 입학비리에 한 번이라도 연루되는 감독, 학생선수 등이 스포츠계에서 그대로 퇴출되는 '일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시행된다. 아울러 대학교 학칙에 입학비리에 연루된 학생선수의 해당 대학 입학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

하기로 했다. 특정 대학에 입학하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건넨 부모의 경우 배임수증제외 등을 적용해 처벌하기로 했다.

입시비리가 발생한 대학교 운동부는 일정 기간 대한체육회 산하 종목별 단체가 주최하는 전국 규모의 리그·토너먼트 대회와 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가 주최하는 배구·축구·농구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입학비리 제재 대상이 개인인 감독과 선수에서 단체인 운동부로 확대된 것이다.

입학비리 연루 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비리 정도에 따라 정원의 10% 이내에 학생 모집이 금지된다. 정부는 해당 대학에 대해 지원 사업을 끊고 예산도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대학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소속에 대한 운동부 지원금(40

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방안은 현재대로 유지된다.

초·중·고교 운동부 감독이 비리를 저지른 경우 해당 학교는 해당 종목단체에 지도자의 비리 사실 등을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가 비리를 저지른 감독과 계약을 해지하던 것에서 종목단체가 해당 감독을 추가 징계까지 할 수 있도록 제재 조치를 강화했다.

입학전형 과정에서 실기 면접 등 정성적 요소보다 경기실적 등 객관적 요소 위주로 평가하고, 고교 성적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기실적증명서 관리 과정을 전면 개편해 입시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민근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태권도원
THE GREAT CHANGE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